

李白 詩의 峨眉山月

郭利夫*

<目 次>

- 一. 序 論
- 二. 峨 眉
- 三. 峨眉山月
- 四. 結 論

一. 序 論

李白(字:太白, 701-762)은 自然現象 中에서 日·月·星에 대해 심취했는데 特히 달에 대해서 心醉했다. 달은 詩에서 중요한 題材가 되고 있는데, 中國文學史上 달(月)을 가장 사랑했고 많이 吟詠한 浪漫主義의 위대한 詩人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李白의 詩文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의 思想에 따라서 微微하게 혹은 巨創한 詩語로 분출되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표현은 正史인 《舊唐書》¹⁾와 《新唐書》²⁾에도 실려 있으며, 술에 취해 강물

*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중문학과 교수

1) 《舊唐書》卷一百九十一下, <文苑>下 李白: “乃浪亦江湖, 終日沈飲, 時御史崔宗之謫居

에 비친 달을 잡으려다가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³⁾ 이 전설을 중국의 화가들은李白과 明月에 대한 題材로 수많은 그림을 그렸다. 즉 <李白捉月圖>, <太白捉月圖>, <謫山捉月圖>, <李白問月圖>, <李白玩月圖>, <李白泛月圖> 등이 있어 일부의 서민들은 그것이 사실인양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李白의 明月에 대한 愛着은 中國人들 뿐만 아니라 특히 漢字文化圈에서도 傳誦되어 敬慕하여 傳說的, 혹은 浪漫性을 주었다고 思料되는 바이니 分析해 볼 價値가 있겠다.

中國의 當代 新月派 詩人 聞一多(1899~1945)는 清華大學 在職時에 早期 創作한 長詩 中の 하나인 <李白之死>는 李白의 <月下獨酌>을 根幹으로 '李白捉月騎鯨而終'이라는 民間 傳說을 기초로 하여 比喩간개함을 當代의 意識과 西歐式인 양식으로 표현했다. 聞一多是 李白의 孤獨을 明月로 怨恨, 愛愁, 親近感, 人間俗世의 苦痛에서 超脫, 大鵬을 타고 八極을 노닐 듯이 달을 타고 하늘을 소요하는 中國의 전통적인 老莊思想을 詩人은 인간의 최고 경지라고 여겼다.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夢幻은 詩人이 지나친 愛好와 보호 때문에 明月이 물에 떨어져 明光을 발산한다는 착각에서 물에 뛰어들어 달을 구하려다가 마침내 溺死했다는 것이다.⁴⁾ 聞一多是 의식적으로 이러한 달에 얽힌 전설을 운색하여 唐代 李白의 歷史性과 孤獨感을 當代의 意識과 감각으로 再現시켜 高度의 民族精氣와 愛國主義 精神을 表現했다.

李白의 詠月詩를 多樣하게 分類해서 그의 詩風, 人生觀, 自然觀, 處世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겠는데 너무 광범위하여 細分化하여 간단히 보겠다.

李白의 詩에서 “月”字가 《李白歌詩索引》⁵⁾에서 “三月”·“五月”·“歲月” 등의 경우나 “月支”(國名)·“古月⁶⁾ 등 특수한 경우로 쓰인 경우를 포함한다

金陵，與白詩酒唱和。嘗月夜乘舟，自采石至金陵，白衣宮錦袍，於舟中顧瞻笑傲，傍若無人。”

2) 《新唐書》卷二百二，〈列傳〉一百二十七，文藝，李白：“鑿求還山，帝賜金放還。白浮遊四方，嘗乘月與崔宗之自采石至金陵，著宮錦袍坐舟中，傍若無人。”

3) 宋 趙令時《侯鯖錄》卷六：“或云太白平生愛謝家青山，葬其處，采石特空墳耳。世傳太白過采石，酒狂捉月。”元 辛文房《唐才子傳·李白》：“白晚節好黃老，度牛渚磯，乘酒捉月，沈水中。”五代 王定保《唐摭言》李白着宮錦袍，遊采石江中，傲然自得，傍若無人。因醉入水中，捉月耳死。”宋 洪邁《容齋隨筆》：“世俗多言，李太白在當塗采石，因醉泛舟於江，見月影俯而取之，遂溺死。故其地有捉月臺。”

4) 李怡，《聞一多名作欣賞》，〈李白之死〉，北京，中國和平出版社，1994. pp. 17~23.

5) 花房英樹編，中譯本，上海古籍出版社，1991

면 약 300首가 넘는다. 李白의 詩를 約 千首라고 한다면 三分之一이니, 三首에 한 번 “月”字가 있는 셈이다.⁷⁾

李白은 詩題에서 “峨眉山月歌”, “月下獨酌”, “把酒問月”처럼 “月”을 쓴 경우도 있고, “春日獨酌”, “寄淮南友人”, “太原早秋”등에서 詩題에는 없지만 내용 중에 “月”을 쓴 것들도 있다.

비록 “峨眉山月歌”, “古朗月行”, “把酒問月”과 같은 시로 詩題上으로는 달을 吟詠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行旅詩, 政治諷刺詩와 飲酒詩로 分別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엄격한 意味로 말한다면 李白의 詩에서 “月”자체를 주제로 삼은 시는 많지 않다고 하겠다.⁸⁾ 고로 그의 詩는 屈折과 振幅이 크므로 部分的으로 引用하는 것도 있지만 선정된 詩는 全體的인 面에서 살피고자 한다.

李白의 고향인 蜀(四川)은 盆地로써 物産이 풍부했고 悠久한 歷史와 文化를 갖춘 지역이었다. 李白이 少年期에 광범위하게 學習한 것들로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5세에 六甲을 읽고 10세에 百家를 보았다.”⁹⁾ “15세에 六甲과 奇書를 보았고 司馬相如를 능가하는 賦를 지었다.”¹⁰⁾ 그러므로 자연히 老莊思想이나 《長短經》의 저자인 趙蕤를 師事하여 雜家(縱橫家)類에도 憧憬을 느꼈다고 추정된다.

詩人은 學習과 漫遊를 통해 성취한 自己의 깊숙한 內面世界를 달을 통해서 各方面으로 表出했다. 그의 想像의 世界는 매우 廣大하여 抽象的인 言語가 自由自在로 素朴하게 혹은 典故를 사용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 그러므로 그의 詩는 全文을 보아야지 일부분만을 보았을 때 顛倒된 의미로 파악될 수도 있는 것이다. 李白의 詩가 難解하다는 것은 그의 知的感情이 高度로 凝縮되어 豊富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이해하는 것도 어렵고 分類하는 데도 苦心하게 되기 마련이다.

李白은 蜀에서 童年期와 青少年期를 보내면서 明月에 대한 愛着을 갖게 되었으니, 그의 一生을 두고 醵수 없는 緣分을 맺었다. 西蜀(四川省) 峨眉山에 있는 峨眉山月은 고향을 상징하며 文學美의 상징으로 여기는 동기가 되었다.

6) “胡”字를 두 글자로 분리시켜 특수한 의미로 쓰인 隱語로 오랑캐라는 뜻.

7) 武部利男 《李白의 夢》 筑摩書房, 1992. p.68.

偉善明 外 三人 《咏月詩選》 廣西人民出版社, 1988. p.99.

8) 松浦友久 《李白》 社會思想社 東京 1980. p.65.

9) 《上安州裴長史書》: “五歲誦六甲 十歲觀百家”

10) 《贈張相鎬 二首》 其二 “十五觀奇書, 作賦凌相如.”

峨眉, 峨眉山, 峨眉山月, 峨眉峰, 峨眉客, 峨眉雪 등을 詩題로 혹은 內容에 쓰고 짙은 鄉愁를 표현하고 있는데 우선 峨眉와 峨眉山月로 大別하여 探求하고자 한다.

二. 峨眉

李白은 蜀에서 학습한 바를 시행하고자 25세에 出蜀하여 고관대작들을 찾아다니며 그의 포부를 펼쳐보였으나, 그의 뜻대로 수용되지 않았다. 그래서李白은 회재불우의 재야 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불우한 신세를 詩를 통해서 자주 읊었는데李白은 자신을 蜀의 峨眉에 비유하며 자신의 울분을 삭이기도 하였다. 그럼 峨眉를 美人의 의미로 쓴 작품들을 살펴보겠다. “君王은 궁녀들 중에서 美人을 총애하였어도 투기하고 증오하는 사람은 어찌할 수 없었네”¹¹⁾ 여기서 峨眉는 궁중에서 총애를 받는 궁녀이지만 함축된 의미를 推想하자면 곧 楊貴妃이며李白을 투기하고 증오하는 사람 역시 楊貴妃이다. 玄宗은 李白의 眞價를 일찍이 간과해서 李白을 翰林學士으로 발탁했고 또한 翰林院의 正官으로 任命코져 3회나 시도했으나 매번 反對한 사람은 楊貴妃였다. 왜 楊貴妃는 집요하게 李白의 正官을 싫어하고 반대했을까? 그것은李白이 宮廷 詩人이었기에 항상 天子의 측근에서 봉사하는 일이 많아졌고, 또한 楊貴妃가 李白의 人間性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李白이 在野에 있을 때는 飲酒를 좋아했고, 酒徒들과 호탕하게 놀기를 좋아했는데 일단 朝廷에 들어오자 성심성의껏 儒家的인 正義感으로 正道를 견고자 했다. 이에 楊貴妃는 위기감을 느꼈고 또한 安祿山에게 好意를 가졌고李白이 宮廷에서 추방된 것도 楊貴妃 음모였고 安祿山이 反亂을 일으킨 동기 역시 楊貴妃 때문이라고 하겠다.¹²⁾

“용사는 황금 도끼를 손에 들고, 美人들은 좋은 술독을 열어 연회를 열었네. 재능이 높은 그대는 幕府에 간다면, 竹林中에 담소로 귀중히 여길 것이네.

11) <玉壺吟> : “…… 君王雖愛峨眉好, 無奈宮中妬殺人.”

12)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1980 pp. 232~233 참고

물은 武陵桃源 玉溪의 달을 머물게 하고, 서리는 三峽의 원숭이를 울게 한다. 東風불어 봄풀이 파릇하게 예뻐질 때 그대 이 곳에 오신다면 江上에 出迎하리”¹³⁾ 아름다운 눈썹을 가진 婦人 즉, 美人의 뜻으로 峨眉를 썼고, “虎士”의 對稱語로 썼다. 竹林七賢中의 阮籍과 阮成은 叔父와 조카 관계인데 竹林中에서 서로 談笑했던 故事를 引用하고 있다. 玉溪는 地名으로 武陵에 있는 다섯 개의 개천을 지적하고 있다. 月光을 舟中에 머물게 하고 三峽의 원숭이 울음 소리는 悲哀의 情을 일으킨다. 봄 바람 불어 봄 풀이 녹색의 자태로 아름다워질 때 趙判官께서 兩親을 뵈러 잠시 이 곳에 온다면 江上에 出迎할 뜻이 있다고 시인의 의지를 표출했다.

“군왕께서 한번 徐王을 돌아본다면, 얼굴색이 예쁜 미녀를 선택해 현상하리라”¹⁴⁾ 五言七十四句의 長詩에서 峨眉는 총애를 받을 수 있는 美女의 뜻으로 天子의 恩澤을 받게 되면 성심성의껏 봉사할 것이라고 썼다. 李白은 항상 唐의 王室과 자기는 같은 先祖로 「從叔」, 「族兄」, 그리고 나이와 行列이 낮은 분에게는 從弟 등으로 쓰고 있는데 친애하는 감정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예쁜 여인 주렴 감아올리고, 방 속 깊이 앉아 눈썹 찡그리며, 눈물 자욱 눈가에 촉촉하니 내보여, 뉘를 한하나 가슴 속을 알 수 없네”¹⁵⁾ 여기서 峨眉는 美女의 눈썹의 아름다움을 말하고 있다. 아름다운 여인이 주렴을 감아올리고 방 속 깊이 묻혀 꼼짝 않고서 곱디고운 눈썹을 찡그리고 있어 西施의 效顰을 연상케 하고 있다. 美女의 신비에 찬 애처로움으로 여운을 질게 남기고 있어 內心의 무궁무진하게 변함을 나타내고 있다.

“달에 날아가니 몸은 다시 地上에 울수 없어 웃음을 머금고 明月의 중앙에 앉았네. 궁궐에서 천자를 모시는 여성들 미모를 과시하건만 끝내는 늙어 체력이 다하여 죽고 말았네.”¹⁶⁾

13) <送趙判官赴黔府中丞叔幕> : “…虎士兼金鉞, 峨眉開玉樽. 才高幕下去, 義重林中言, 水宿五溪月, 霜啼三峽猿.”

14) <感時留別從兄徐王廷年從弟廷陵> “…君王一顧盼, 選色獻峨眉…”

15) <怨情> : “美人捲珠簾, 深坐嚙峨眉. 但見淚痕濕, 不知心恨誰.”

16) <感遇> 四首其三 : “飛去身莫還, 含笑坐明月. 紫宮誇峨眉, 隋手會凋歇.”

여기서 峨眉는 美人들의 美貌 즉, 眉目秀麗함을 말하고 있다.

“두 개의 복숭아로 세명의 勇士를 죽였으니, 찬 서리처럼 예리한 명검을 쓸 필요 없었네 수많은 宮女를 재능있는 미인을 질투해 봄철의 꽃들은 꽃향기로 서로 경쟁하네”¹⁷⁾

여기서 峨眉는 屈原이 楚의 宮廷에서 수많은 미인들과 高官들이 미움과 질투를 한 것을 말하고 있다. 春秋時代 齊나라의 景公은 晏子の 奇計를 써서 才能있는 세 勇士를 모두 自殺하게 하였으니 名劍이 필요 없었다. 屈原처럼 才能있는 사람도 질투의 대상이 되면 참언이나 참소로 자살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李白은 他人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게 하는 참언하는 사람을 두려워하며 미워하게 됐다.

“美女는 아침에 떠 있는 달을 좋아해 그녀가 한번 웃으면 하나의 城을 무너뜨릴 수 있네. 그녀는 고결한 절조를 지녀 쉽게 뺏을 수 없어 빛이 밝기가 옹고한 金丹과 같이 굳세네”¹⁸⁾

여기서 峨眉는 美人 즉, 美女로 地上 최고의 山境 崑崙山에 살고 있는 仙人 西王母를 지칭한다고 하겠다.

“瑤池를 내려다 보아 王母를 볼 수 있다면, 아미산의 쓸쓸한 바람소리는 가을 서리 같네”¹⁹⁾

여기서 峨眉는 峨眉山을 가리킨다.

天上의 神仙世界는 매우 높아 하늘 위에 있어 아득히 먼 崑崙山의 옆에 있는 瑤池를 내려다 볼 수 있다면 또한 地上의 名山인 蜀의 峨眉山도 볼 수 있고 바람소리도 들을 수 있는데 계절이 가을이라 흰 서리가 내려 온통 하얗게 만 보인다.

17) <權譏> : “二桃殺三死, 詎假劍如霜. 衆如妬峨眉, 雙花競春芳.”

18) <感興>之首其五 : “峨眉艷曉月, 一笑傾城歡. 高節不可奪, 炯心如凝丹.”

19) <飛龍引>二首其二 : “下視瑤池見王母, 峨眉蕭颯如秋霜”

“미인이 앓은뱅이를 비웃었고 平原君의 빈객들은 돌아가겠다고 말했네. 총애하는 미인을 참수하니 수많은 빈객들 도망쳤다 돌아왔네”²⁰⁾

여기서 峨眉山는 趙나라의 平原君의 집에 사는 美人을 지칭한다. 美人이 이웃집에 사는 앓은뱅이를 비웃었는데 그 이유로 총애하는 美人이라도 平原君은 美人의 목을 베어 버렸다. 平原君은 참수한 美人의 머리를 들고 앓은뱅이 집에 가서 사죄를 했다. 그러나 삼천여명의 빈객들은 일시에 도망쳤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돌아온 故事를 인용했다.

“연회에는 관료들이 가득 메워, 의관은 천연해옥으로 숲을 이룬 듯. 물새 형상을 뱃머리에 물새들 긴 배는 湖北에 떠 있고 호수에 비친 영상을 감상해 미인들 명주를 몸에 장식해 예쁘네.”²¹⁾ 여기서 峨眉山는 美女들을 지칭하고 있다. 천자가 타는 배는 익(鷁)이라는 물새 형상을 船首에 새기는데, 이 배는 풍파를 잘 견뎌내므로 이 새를 장식한다고 한다. 이러한 배를 타고 연회를 베풀고 게다가 美女들까지 이러한 배를 타고 명주로 몸에 장식을 하고 주홍을 돋구는 거문고의 장단에 무용을 하니 地上이 아닌 天上세계에서 노니는 것 같다고 하겠다.

“峨眉山 西天에 우뚝 솟아 나부산과 연결되어 바로 남해에 이어졌네.”²²⁾ 趙炎은 유명한 畫家는 아니지만 그의 山水畫를 李白이 品評하고나니 不朽의 作品이 되었다. 여기서 峨眉山는 峨眉山을 지칭하며 羅浮山과 연결되고 또한 南海에 이어졌다는 사실을 目前에서 보듯 서술한 것은 그곳을 탐방했던 青年時節을 회상하며 그리워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蜀의 峨眉山는 蛾眉와 같은 뜻으로 미인이나 미녀로 쓰고 있지만 詩人은 또한 峨眉山의 의미로도 쓰고 있다.

20) <送薛九被讒去魯> : “峨眉山笑覽者，賓客去平原。却斬美人首，三千還駿奔。”

21) <春月陪楊江寧及諸官宴北湖感古作> : “英儔滿四座，粲若瓊林敷。鷁首弄倒景，蛾眉綴明珠。”

22) <當途趙炎少府粉圖山水歌> “峨眉山高出西極天，羅浮直與南溟連。”

三. 峨眉山月

峨眉山은 四川盆地 西南쪽에 위풍당당하게 자리 잡고 있어 浙江省의 普陀山, 安徽省의 九華山과 山西省의 五臺山과 并稱되는 佛敎의 四大名山이다. 산의 생긴 형세가 꾸불꾸불 멀리 이어졌는데, “매미 머리의 눈썹같이 가늘고 길어 매우 아름답다.”(如螭首蛾眉, 細而長, 美而艷). 그래서 이러한 名稱을 얻었다. 峨眉 산맥은 連峰을 이뤄 起伏이 심하고 첩첩한 산봉우리로 아름답고 기세가 드높고 웅대하며 빼어나고 우아하고 기묘해 “아미산은 천하에서 최고다(峨眉天下秀)”라는 영예로운 명성을 얻게 되었다.

李白이 開元八년(720)에 峨眉山을 登覽하고 感懷를 “齊梁之風”을 일소하여 읊었다.

<登峨眉山>

촉나라는 신선의 仙山도 많고 많아	蜀國多仙山
아미산 험해 필적할 산이 없다네	峨眉邈難匹
등람하고 싶어도 험난해 오를 수 없고	周流試登覽
기괴한 모습은 다 볼 수도 없다네	絕怪安可息
검푸른 색의 아미산은 하늘을 뚫고 우뚝	靑冥倚天開
그 모습의 색채들 그림으로 그려낼 수도 없어	彩錯疑畫出
맑은 자주색의 노을은 仙境은 아닌지 감상해	冷然紫霞賞
과연 황금상자속 비단주머니 안의 仙境祕書를 얻었네	果得錦囊術
구름사이에서 옥피리 소리 은은히 들려와	雲間吟瓊簫
돌 위에서 옥으로 장식한 거문고 타는 사람 있네	石上弄寶瑟
평생동안 원했던 이런 신비로운 환경에서	平生有微尙
즐겁게 담소하는 생각에 매우 만족스럽다	歡笑自此畢
구름과 연기의 변화를 눈으로 보고 있으려니	烟容如在顏
세속의 모든 번뇌가 홀연히 소멸되는 듯하네	塵累忽相失
지금 양치기하는 선인을 만날 수 있다면	儻逢騎羊子
세속을 잊고 손에 손 잡고 해를 타고 仙人되리	攜手凌白日

本詩의 제작 년도에 개원 8년(720)²³⁾과 개원 12년(724)의 두 학설이 있는데 필자는 개원 8년의 작품으로 보겠다. 開元 12년(724)²⁴⁾은 이백이 出蜀하는 해이기에 시간적으로 기행시를 쓰기에 너무 촉박했기 때문이다. 前掲

李白은 蜀國에는 神仙의 산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특이한 仙山인 峨眉山的 험난함과 모습이 仙境과 같이 보이는 상황을 서술하고 마주대한 峨眉山에서 느끼는 感想. 즉, 非現實的 幻想을 現實化 시켜보려는 內心을 표현하였다. 한 낮의 “白日”을 한 밤의 明月로 聯想해 볼수 있겠고, 峨眉山을 고향인 蜀의 산이고, 母親의 품속과 같이 안온하며 非現實的인 想像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 峨眉, 峨眉客과 峨眉山月을 層階的으로 쓸 정도로 짙은 향수에 젖는 모양을 보였다.

峨眉山은 四川省 峨眉縣 西南쪽 7Km 지점, 岷山縣 南端에 위치해 있다. 岷山 山脈이 峨眉에 이르러 突起한 것이 峨眉山인데, 북쪽의 大峨, 남쪽의 中峨, 가장 남쪽의 小峨의 세 봉우리가 連峰으로 모두 아름답고 大山이다.²⁵⁾

두 봉우리가 우뚝 마주보고 솟아 마치 아름다운 여인의 초생달 같은 양쪽 눈썹 같으므로 美人의 形容으로 쓰이는 峨眉山이라고 하였는데, 높이는 해발 3,099m이다. 峨眉山은 天下에 이름난 名山으로 아름다운 奇峰, 울창한 樹林, 폭포를 이룬 냇물로 風景이 秀麗하며, 一年 四季節마다 風景이 各樣各色이다. 山頂의 雲海, 日出, 寶光은 三大奇觀이어서 天下第一山이란 칭호를 얻었다. 또 峨眉山은 道敎의 第七洞天이고 佛敎의 四大名山의 하나로 “金頂佛光”으로 “光明山”이라고 佛敎徒들은 칭하고 있다.²⁶⁾

<峨眉山月歌>

峨眉山에 걸린 반쪽 가을달
그림자만 平羌물 따라 흐르네
밤에 淸溪를 출발코 三峽을 바라
님 그리며 못본 채 渝州로 가네

峨眉山月半輪秋
影入平羌江水流
夜發淸溪向三峽
思君不見下渝州

23) 安旗 《李白全集編年注釋》, 巴蜀書社, 成都, 1990, p 19

24) 大野實之助, 前掲書 p.16

25) 大野實之助, 前掲書. p.7.

26) 賈璇玉 《中國地略與趣》 中國環境科學出版社, 北京1991. p.127.

이 詩는 李白이 25세때 (開元十三年) “仗劍去國, 辭親遠游” 로 故鄉 蜀을 떠나 犍爲縣 淸溪驛에서 출발해 渝州(重慶)로 가는 水路上에서 出蜀의 감회를 읊은 것이다. 詩人是 5세 때 西域에서 入蜀하여 25세 때 出蜀漫遊함에 峨眉山月도 20年 동안 깊은 情誼를 맺고 또한 진지한 반려자로 간주되었다. 고로 末句의 “君” 자를 시인의 친구로 해석하는 학자도 있지만 峨眉山月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하겠다.²⁷⁾ 또한 詩題에서도 峨眉山月을 쓰고 있기에 더욱 그렇다.

李白은 意識的으로 “月”과 연관이 있는 半輪·君字를 썼으며, 不過 28字의 七言絶句 속에 峨眉山, 平羌江(一名 青衣江), 淸溪, 三峽²⁸⁾, 渝州 등 5개의 地名 12字 峨眉山月을 하나의 명사로 보면 13字인데, 詩意에 융합시켜 유창하게 사용하기도 하였다.

“淸溪”는 과연 어느 곳에 있는가? 과거에 眉州, 犍爲, 納溪, 資州 등의 지역을 모두 淸계역이라고 했지만 本詩에서서 묘사한 구체적인 情景과는 모두 거리가 멀어서 이곳은 현재의 樂山城北 40리, 岷江 강변의 板橋溪라고 보겠다. 唐代에 이곳을 淸溪驛이라고 불렀고, 이곳은 고거에도 줄곧 水陸의 要衝地로 商人과 通行人이 많은 곳이다.²⁹⁾

峨眉山月에 대해 李白은 자기의 詩魂을 관철시켜 심각성과 친밀감을 느끼도록 표현했다. 本詩에서의 初七·八의 반달인 峨眉山月の 夜景은 道家的인 韻致를 자아내고 있으며, 蜀에서 읽은 <子虛賦>와 奇書등을 연상하게 하며 배(舟)의 신속함은 超越的인 情趣를 내재하고 있다.

그가 出蜀한 이후에 峨眉山月の 形象이 더 玲瓏하게 새겨져 있었기에, 특히 失意詩나 挫折感, 別離을 느낄 때는 더욱 뚜렷하게 고향의 달로 發露되었던 것이다.

<峨眉山月歌送蜀晏入中京>

내가 巴縣 동쪽 三峽에 있을 때,
서쪽 明月 보곤 峨眉 생각했네.

我在巴東三峽時
西看明月憶峨眉

27) 杜逸伯《李太白 詩歌 欣賞》吉林省 吉林師範學院, 中文系 1980년 p13

28) 王琦, 前揭書 p.442. “巴峽, 明月峽, 巫峽, 是爲三峽.”一說: 瞿塘峽, 巫山, 西陵峽

29) 《文史知識》, 陳德忠 <“夜發”淸溪與“向”三峽> 北京 中華書局, 1982, 제3期 p105

달은 峨眉山에 떠올라 滄海를 비추리.
 사람과 만리 먼길로 서로 떨어져 있네.
 黃鶴樓 앞 달은 화려하고도 희어서,
 이 곳에서 홀연히 峨眉山그네 만나네.
 峨眉山의 달은 님을 돌려 보내고,
 바람 불어 서쪽 낫선 長安길 왔네.
 長安의 큰 길은 九天에 걸쳐 있고,
 峨眉山의 달님은 秦川을 비춘다.
 長安에서 남은 黃金獅子 높은 자리에 타리니,
 白玉자루 먼지털이 흔들며 玄談을 論하리.
 난 뜬 구름처럼 吳越에서 노곤해진 듯,
 님은 황제 만나 궁궐에서 놀았었다.
 한번 高名을 떨쳐 首都에 가득하니,
 고향 돌아갈 땐 저와 峨眉山月감상하리.

月出峨眉山照滄海
 與人萬里長相隨
 黃鶴樓前月華白
 此中忽見峨眉山客
 峨眉山月還送君
 風吹西到長安陌
 長安大道橫九天
 峨眉山月照秦川
 黃金獅子乘高座
 白玉塵尾談重玄
 我似浮雲滯吳月
 君逢聖主遊丹闕
 一振高名滿帝都
 歸時還弄峨眉山月。

李白은 永王 璘의 軍陣에 幕僚로 가담했다가 肅宗에 의해 叛亂軍으로 몰렸다. 그 連坐罪로 蜀의 南쪽에 있는 夜郎으로 追放명령을 받았으니, 그곳은 蠻地로 極刑인 流配地이다. 第5句를 보아서 아마도 乾元2년(795) 여름 경에 流配되는 도중 武昌에서 쓴 것인 듯 하다.³⁰⁾

李白은 서쪽의 달만 보아도 고향 峨眉山月인가 하여 蜀의 少年·青年時節과 父母兄弟를 그리워했다. 자신의 出蜀과 出仕에의 길은 “功成身退”로 일관되었으니, 功業을 이루지 못한 애처로운 心情과 流配地로 향하는 괴로운 심정을 逼真하게 표현했다. 第七句와 第十句에서 두 차례나 쓴 峨眉山月은 李白에게는 “功成身退”하고 돌아갈 마지막 堡壘였다고 하겠다. 그 곳에는 父母兄弟가 있기도 하지만 師傅이신 趙蕤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이 詩에서는 “重玄” 즉 老子의 “玄之又玄”의 뜻과 道家的인 “黃鶴樓”의 典故를 쓰고 興趣를 자아냈고, 또한 滄海를 理想世界로 표현하고자 했다. 佛家的인 黃金獅子를 써서 月과 黃鶴樓를 交織시켰지만 道家的인 운치가 더 두드러진다고 하겠다.

30) 大島實之早, 前掲書, p.1004.

이 처럼 李白의 峨眉山月 에 대한 애착심과 故郷에 대한 懷念은 蜀人만 보아도 聯想되어 相互 交融하여 일치되고 있다. 詩人은 고향의 月色과 스님에 대한 깊은 情感을 묘사했으니 月景과 人情이 一體로 잘 융합되었다. 앞의 <峨眉山月歌>의 姊妹詩篇이라 할 수 있는 佳作이다.

<靜夜思>

침상 머리의 달빛을 보니	牀前看月光
땅에 내린 서리는 아닌지?	疑是地上霜
머리들어 山月을 바라보고	舉頭望山月
머리 숙여 고향을 그려보네	低頭思故郷

詩題 자체로도 시의 내용을 감지할 수 있는데, 唐代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詩題로서³¹⁾, 李白의 創意性을 돋보이게 하는 작품이다.

李白은 生涯의 大部分을 他郷에서 放浪客으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며 一生을 마쳤다. 人間은 누구나 故郷에서만 一生을 보낼 수는 없어 客地生活 혹은 異國生活을 짧게든 길게든 해야만 하니, 언제 어느 경우라도 詩人의 生動的인 心理상태와 一致할 수 있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 詩는 中國은 물론이지만 東南亞의 漢字文化圈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더욱 鄉愁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望郷歌이다.

他郷에서의 高요한 月夜의 孤獨感과 寂寞感, 輾轉不寐의 情態, 愁思의 狀態에서, 李白은 典故나 誇張의 手法을 쓰지 않고 가장 쉬운 단어로 情意를 眞率하게 썼다.

1,2句에선 “月白如霜”을 반복함으로써 思郷에 대한 주위 환경의 분위기를 자아냈고, 3句는 자연적인 思郷의 動作이며, 마지막 句는 고개를 숙여 고향을 생각함으로써 感情을 昇華시켰다. “山月”은 어느 곳에 있는 李白은 峨眉山月을 聯想했다고 하겠으니 思郷과 老莊思想의 一面을 엿볼 수 있다.

父親은 故郷 蜀에서의 李客이요, 自身은 放浪客이니, 침상에 누워선 輾轉反側이요, 일어나선 “舉頭望”, “低頭思”하니, 思想의 複雜多樣性과 複雜多岐한

31) 大野實之助, 前掲書, p.124.

心琴을 李白은 假飾없이 素朴한 筆致로 썼다. 이렇게 李白은 眞情을 썼기에 사람을 감동케 하는 것이고, 眞實感을 가진 예술적 筆力은 사람의 心琴을 울리는 예술적 효과를 낳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李白의 詩歌 中에서 가장 잘 알려진 詩의 하나로서, 千二百年의 長久한 세월동안 아낌을 받아온 것이다.

<上皇西巡南京歌> 十首其七

錦水 강물 동으로 흘러 금성을 돌고	錦水東流繞錦城
星橋의 다리에 북두칠성이 걸려 있는 듯	星橋北挂象天星
四海의 이곳 중앙에서 성주님이 조회를 하니	四海此中朝聖主
아미산 중허리 선인들 조정에 들었네	峨眉山下列仙庭

玄宗의 安史의 亂에 의해 蜀의 官署를 別宮으로 삼아 內亂이 종결되기를 학수고대하는 가운데 진정 국면에 이르렀다. 그래서 詩人은 낭만적 요소를 가미하여 그의 특유하고 특색 있는 모양을 서술하여 峨眉山은 神仙들이 많이 살고 있는 神界로玄宗의 生活태도를 그 곳에서 볼 수 있듯이 표현하여 峨眉山은 仙山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四. 結 論

李白의 詩歌 中에서 景物에 관한 詩篇은 매우 重要的 위치를 차지한다. 이들 詩篇은 自然 景物의 道德觀念과 美學的 方面에서 가장 높은 成就度를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高次元의인 浪漫主義 精神의 加味로 인하여 敘景과 抒情의 融合으로 典範이 되었다고 하겠다.

李白은 中國의 錦繡江山과 大自然의 美에 眩惑되었다고 할 정도로 一生동안 名山大川을 찾아 다녔고, 天下에 足跡을 남겼다. 그는 가는 곳마다 文學家의 銳利한 洞察力과 審美眼을 詩歌로 吟咏하였으니 대부분 名篇巨作이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度外視하고 보잘 것 없었던 微物과 景物도 그의 筆致아래서는 生動感· 哲理性과 思想性을 갖춘 所在로 變身되었던 것이다. 만약 李白이 哲學과 美學的 觀點에서 自然景物을 自身の 感情과 思想, 더 나아가 政

治性向에 이르기까지를 自然에 移入해 混在시키지 않았다면, 무미건조한 客觀的인 景物과 自然現象 그대로 存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는 探索的 詩人으로 自然의 內面과 外面을 모두 看破하고 自然意象의 美學觀點을 萬古絶唱으로 作品化하였고, 때로는 碧山과 人間의 矛盾을 구차한 說明없이 禪門答式으로 “問余何意棲碧山, 笑而不答心自閑, 桃花流水杳然去, 別有天地非人間” <山中問答>으로 표현하기도 하여, 自然意象과 醜惡한 社會環境의 矛盾을 간단명료하게 나타내었다.

李白은 달을 가장 좋아했으니 암혹을 밝혀주는 달의 어둠을 밝히는 효용성, 새하얀 투명성, 원만한 단합성 때문이다. 그의 문학정신과 달이 융합되어 그의 독특한 文學美를 표출하고 있다. 李白 詩中の 自然意象과 現實中の 自然意象은 같지 않은데, 客觀的인 景物에 主觀的인 感情과 思想을 形象中에 結合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李白 詩 속의 自然意象은 李白 特有의 個性化, 風格化된 것이다. 峨眉는 美人 혹은 美女를 지칭하고 있지만 詩人의 內心에는 才能을 구비하고 있어도 封建社會에서 正義社會가 아닌 社會的 혼란으로 李白이 黑이 되는 社會惡을 비판하며 懷才不遇한 詩人 自身을 別칭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峨眉山月은 詩人의 浪漫性을 自由自在로 펼칠 수 있는 理想郷이며 또한 非理의 社會를 밝고 아름답게 비춰 덮어 줄 수 있는 청정한 고향을 상징하는 상징물이고 詩人의 文學美의 상징이 되었다. 또한 李白에게 峨眉와 峨眉山月은 現世는 물론이거니와 來世에도 함께 共有할 천진난만함 그 自體라고 하겠다.

李白은 李光弼의 安史의 반란군을 토벌하는 군대에 從軍했다가 도중에 발병하여 金陵에 돌아와 潤州刺史 崔侍御의 도움으로 진단을 받으니 “腐脇疾(肋膜炎)”이었다. 이 병은 서서히 폐와 횡격막 사이에 화농하고 고열로 근치가 힘든 증병이었다. 때마침 安徽 當塗 縣令 李陽氷이 公務로 金陵에 왔다가 李白을 問病하고서 그와 함께 當塗에 가서 요양할 것을 요청하니 쾌히 從叔의 권유를 받고 즉시 옮겼다.

李陽氷은 字가 少濕이며 篆書의 大家로 張旭이후에 顏眞卿 書法의 일인자였다. 李白과 李陽氷은 서로 알고 지낸지 오래되었고 李氏 族譜에서 그가 李白보다 한 代 앞섰기에 從叔이라 불렀다. 當塗는 李白이 一生동안 여러 차례 간 곳이며, 그 곳의 山水를 좋아했으니, 天門山, 靑山, 龍山이 있었기 때문이다.

天門山은 長江 兩岸을 南北으로 對峙하고 있어 멀리서 보면 峨眉와 같아서 사람들은 天門山을 “峨眉山”이라고 불렀는데, 李白은 특히 그곳의 山水가 峨眉山的 山水를 想起시켜 좋아했고 〈望天門山〉에서 그의 구체적인 思想과 情緒를 읊기도 했다. 靑山 남쪽 기슭에는 小謝인 謝朓가 宣城太守때 지은 古宅이 있어 좋아했다. 龍山은 靑山과 강 하나를 두고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또한 龍山은 龍脈을 지녀 吉祥의 明堂이었기에 李白이 좋아했기에 李陽氷은 李白이 寶應 元年 (762) 十一月에 죽자 이곳에 安葬했다.³²⁾

사람들은 李白의 죽음을 아쉬워해 각양각색의 민간 설화와 전설을 만들어 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李太白은 當塗에서 술을 마시며 뱃놀이 하다가 강물에 비친 달을 하늘에 떠 있는 달로 오인해, 그가 몸을 구부려 달을 잡으려다가 불행히 물에 빠져 죽었다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詩人은 물에 빠져 죽은 것이 아니고, 큰 고래를 타고 仙界로 가서 仙人이 되었고 절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전설은 그의 生涯와 비슷하니 그는 젊었을 때 자신을 大鵬에 자주 비유했으니 羽化登仙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明月을 애호한 달의 詩人 李白은 고향인 蜀에서 峨眉와 峨眉山月을 보면서 꿈을 키웠고 出蜀후에는 峨眉와 峨眉山月로 懷才不遇함을 노래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다. 또한 병이 들어 건강이 회복되지 않음을 예감하고서 峨眉山이라고 불리는 天門山과 마주보는 龍脈의 龍山에 묻히기를 원했고 出蜀한 후에 한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하고 客死해 그 곳에 묻혔으니 峨眉山月은 今世의 고향의 秋月이고 天門山月은 後世의 他鄉의 冬月이라고 하겠고 永遠無窮하게 月光을 發散하리라 思料된다.

32) 曾月邨, 吳實 《李白, 臨路歌》 長沙市, 岳麓書社, 1997년 p422

【參考文獻】

1. 李怡, 《聞一多名作欣賞》, 〈李白之死〉, 北京, 中國和平出版社, 1994.
2. 花房英樹 編, 中譯本, 上海古籍出版社. 1991
3. 武部利男, 《李白的夢》 筑摩書房, 1992
4. 偉善明 外 三人, 《咏月詩選》, 廣西人民出版社, 1988.
6. 松浦友久, 《李白》, 社會思想社 東京 1980.
7. 大野實之助, 《李太白詩歌全解》東京, 早稻田大學出版部, 1980
8. 《中國名勝詞典》上海古籍出版社 1986年.
9. 賈璇玉 《中國地略與趣》 中國環境科學出版社, 北京1991.
10. 杜逸伯 《李太白 詩歌 欣賞》 吉林省 吉林師範學院, 中文系 1980년
11. 胥樹人, 《李白和他的詩歌》上海古籍出版社, 1984년
12. 《文史知識》北京中華書局出版, 1982年 제 3期